

## 은혜 받는 사순절이 되자

눅 4:25-30

2005 년도 10 월 26 일 신문에 보면 “교회에 다니면 부자가 된다”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MIT 공과대학의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Economic Research)가 발행하는 논문에 ‘조나단 그루버’(Jonathan Gruber)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실렸습니다. 그 논문 제목은 “종교시장 구조와 종교참여 및 결과”(RELIGIOUS MARKET STRUCTURE, RELIGIOUS PARTICIPATION, AND OUTCOMES)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유익한가?”(IS RELIGION GOOD FOR YOU?)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관심을 끄는데, 첫째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배참석률이 높을수록 학력이나 소득이 높고, 반대로 도움 받는 복지혜택은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출석률이 두 배가 되면 가계소득이 9.1%가 증가가 되고 복지혜택은 반대로 16%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 역사는 이러한 사실들을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절기에는 40 일을 지키는 절기가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전의 40 일,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준비한다고 해서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0 일, 즉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까지의 40 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러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을까?” 그런 신앙적인 훈련을 갖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영어로 사순절을 ‘Lent’라고 합니다. 이 뜻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 따뜻한 봄으로 가는 계절에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돌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임원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육체적 훈련을 받게 되면 운동을 하게 되어 건강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교회 역사 속에서 사순절이 훈련하기 좋은 때입니다.

1800 년대 일본의 후쿠사이 라는 유명한 화가의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후쿠사이에게 친한 친구가 와서는 “나에게 수탉 그림을 좀 한 장 그려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쿠사이는 일주일 있다가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주일 있다가 가니까 이 후쿠사이가 그림을 그려 놓지 않았습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한 달 있다가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달 후에 가니 또 다음에 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계속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그렇게 하기를 1년, 2년, 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친구도 참 대단하지요. 수탉 그림 한 장 받으려고 3년이나 기다리니 말입니다. 이제는 이 친구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지금 당장 수탉 그림을 그려줘라. 지금 안 그려 주면 말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후쿠사이가 이 친구를 봤을 때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이에 수탉을 그려주는데 얼마나 잘 그려주는지요. 살아있는 닭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면서 여태까지 왜 안 그려줬냐?” 그랬더니 후쿠사이가 아무소리도 안하고는 자기를 따라오라고만 합니다. 따라갔더니 뒤의 작업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 안에 들어서니 온 벽면에 수탉그림이 도배한 것처럼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수탉그림이 있는데 왜 3년 동안 그림을 안 준거냐?”하니 이 후쿠사이가 하는 말,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가장 좋은 그림을 주고 싶었다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림은 그냥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그려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 성장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신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주시고 사랑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롭게 광야에서 잠자리에 듭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환상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주어져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네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켜 주리라.”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외롭고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려운 난관을 만납니다. 형에서는 야곱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군인 400명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형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압복강가에 혼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적인 줄 알고 열심히 밤새도록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길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렘다 과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 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렘다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과 떡을 달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나그네에게 물과 한 끼 식사의 떡을 대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씨름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 한사람 살기도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사렘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결코 맹세하지만 우리 집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묻은 기름 몇 방울뿐입니다. 나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 다 그 남은 것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 아들과 나누어 먹고 함께 죽을 작정이었습니다.”(왕상 17:12)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나 먹기 바쁘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렘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습시다. 불평하지 않았습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말하지 않았습시다. 나는 한 번 밖에 먹을 양식밖에 없지만 주의 종의 말대로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밀가루도 바닥이 나지 않고 그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왕상 17:16)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 마지막 남은 정력, 마지막 남은 돈, 마지막 남은 희생까지도 요구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크다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 한센씨 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고침 받은 사람은 단 한사람 나아만이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해서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렘다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을 해결해 주셔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1980년도 재선에서 큰 표 차로 실패했습니다. 선거비용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유산인 농장까지 팔았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미카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대통령의 경험으로 세계분쟁을 조종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소말리아, 아이티, 북한의 핵문제, 쿠바의 분쟁까지 이 세계 속의 분쟁이 있는 곳에 다 찾아 갑니다.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인권, 경제, 사회 개발의 공로를 했다는 겁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권 시에는 최악의 대통령, 퇴임 후에는 최고의 전직 대통령” 그가 몇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경험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내 계획보다 넓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화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화와 함께 은혜 받는 사순절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리븐 (Joseph M. Scriven)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결혼식이 있기 전날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자포자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아주 뼈뿔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향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고향 아일랜드를 떠나 멀리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역사 속에 남을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우리는 늘 기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가 487)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될 줄을 모를까

시험걱정 모든 괴롬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될까

근심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